

목포 갯바위, 예향 공간 탈바꿈

목포 갯바위 해양관광지가 문화·예술이 조화된 예향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목포시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48억9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갯바위 해양관광지 1단계 개발사업을 마무리한데 이어 2009년까지 52억 원을 투자하는 2단계 사업에 착수한다.

현재 갯바위 해양관광지에는 국내 최대 자연사박물관과 오는 3월 박물관으로 승격되는 해양유물전시관, 남종화의 뿌리와 전통을 느낄 수 있는 남종기념관과 향토문화관 등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

또 옥공예 예전수관과 살풀이 춤전수관도 위치해 있어 목포를 찾은 관광객들의 필수 관광 코스로 각광받고 있다.

여기에 오는 2009년까지 자연생태 학습시설과 전통 누각 1개소, 야외공연장, 만남의 광장 등이 조성되면 국

2009년까지 52억 투입 생태학습장 조성 미술관, 분재·수석 전시관 등 관광명소로



내에서 보기 드문 문화관광명소로 거 이들과 함께 오는 9월 개관을 목표로 들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개관을 목표로 한창 공사가 진행중인 목포문화관은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이자 근현대 한국문학의 거두라고 할 수 있는 소영 박학성 선생과 차범석 선생의 문학혼을 비롯 향토 출신 문학가들의 활동을 계승·발전 시키기 위한 산실로 활용하게 된다.

특히 최근 갯바위 해양관광지에 대한 대규모 민자유치가 이뤄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목포시는 구립 29일 우산문화재단과 600여원의 문화·예술 관광분야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은 우산문화재단측이 1천평 규모의 미술관과 국내 최대 규모의 분재·수석·조각 전시관을 건립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성사됐다.

민간투자가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연말께 미술관 등 전시관이 갯바위 해양관광지내에 문을 열게 된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기초단체장 새해 청사진

서삼석 무안군수

“기업도시 성공적 추진”

“올해는 ‘서남권 종합발전 계획’의 원년으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인근 시·군과 협력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되도록 역점을 두겠습니다”

새해를 맞은 서삼석 무안군수의 감회는 특별하다. 올해가 서남권 종합발전계획 시행의 원년인데다 광주~무안 고속국도와 무안국제공항 등 굵직한 지역현안사업들이 결실을 맺기 때문이다.



건을 갖추고 하반기에는 기반시설 공사에 착수하게 된다.

한·중국제산단지에는 60만평 규모의 차이나 타운도 건설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 군수는 남악산도시 활성화와 함께 무안시 승격을 기필코 이뤄내 ‘비상하는 새무안시대’를 활짝 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신 도청시대를 맞아 남악산도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 조기 확충과 공공 시설물 인계인수, 공공기관 이전 지원 등에도 심

SOC 확충에 행정력 집중

서 군수는 특히 무안국제공항을 인천, 김해공항과 더불어 국토의 심장축이자 국제화물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활주로 연장(400m) 사업추진과 무안~광주간 및 운남~압해간 교통망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수출 유망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첨단 원예단지(57ha) 조성에 1천64억원을 투입하는 등 농업 국제 경쟁력 제고에도 앞장선다는 구상이다.

또한 신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태양광에너지 특구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현재 무안지역은 선택크리닉스가 1메가와트(Mw)급 태양광발전소를 준공,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등 태양광 에너지 최첨단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100만평 규모의 태양광 발전 특구단지를 조성하고 태양부품 제조라인시설, 에너지 학습관(테마파크) 및 에너지연구소 건립, 체험전시 시설 등을 만들어 관광자원화 할 방침이다.

특히 서 군수는 무안군의 꿈과

환황해권 거점도시 육성

미래가 담긴 성공적인 기업도시 건설 추진으로 동북아 중심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하나하나 실천해가고 있다.

이미 지난해 11월 1단계 526만평의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마쳤으며 상반기 개발계획 승인이 나면 토지보상 등 제반 여

양파·백련 등 소득원 개발

력을 기울여 2008년까지 1만1천세대대의 입주자가 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책을 펴겠다는 것이다.

농·축·어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도 올해 중요한 국정과제다. 친환경 농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유기산 축산물 인증제’ 도입과 마늘, 양파, 백련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과 어업기반시설 확충 및 소득원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올해는 또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장려정책을 추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에도 역점을 둘 방침이다.

/무안=이원희기자 whlee@

목포대교 건설 '이상' 무

정부 '계속비 사업' 확정

연간 500억 이상 투입

목포대교 건설사업이 준공 시기에 맞춰 예산이 지원되는 '계속비 사업'으로 확정돼 당초 계획대로 오는 2011년 준공이 가능하게 됐다.

목포대교는 당초 매년 중앙부처가 형편에 따라 예산을 매정하는 '장기 계속사업'으로 분류돼 2011년 준공이 불가능할 것으로 우려됐었다.

그러나 정중득 목포시장이 관련 부처를 상대로 목포대교 사업의 당위성을 역설, 올해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승격됐다.

이에따라 앞으로 연간 500억원 이상이 목포대교 건설사업에 배정되는 등 20011년 완공이 가능하게 됐다.

목포대교는 지난해 까지 국비 285억원과 시비 105억원이 투자돼 겨우 토지 보상을 완료하는 등 부진한 공정을 보여왔다.

오는 2011년 목포대교가 완공되면 신항과 서해안고속도로, 무안 국제공항 등 물류시설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영산호 교통정체도 해소되는 등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신안군 “관공선 4척 없앤다”

군수 전용 행정선 등 8억여원 절감 효과

신안군이 군수 전용 행정선 등 모두 4척의 관공선을 없애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으로 연간 8억여 원의 유지 관리비가 절감돼 열악한 군 재정에 보탬을 주게 됐다.

신안군은 군수 전용 행정선인 전남 530호(56t)를 비롯해 불법 모래단속선 전남 535호(26t), 행정지도선 전남

534호(19t), 전남 536호(22t) 등 4척을 군의회 승인을 받아 이달 중 처분키로 했다.

관공선들을 매각하는 대신 군수를 비롯한 직원들은 여객선 등을 이용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는 임차한 민간 선박을 이용, 신속하게 섬을 누비며 행정을 펼치게 된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신안군청 남상을씨

와이즈멘 '봉사상' 수상



신안군청 문화관광과 남상을(52·사진)씨가 구립 26일 목포신안비치호텔에서 열렸던 국제와이즈멘 한국남부지구 서해지방 제 37차 행사에서 지역 봉사상을 수상했다.

남상을씨는 평소 올바른 교육이념과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신안 섬은 원래 1004개”

해일제조사·간척·매립으로 177개 줄어

신안지역 섬이 원래 1천4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안군은 “지난 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읍, 면 직원을 동원, 주민 면담 등의 방법을 통해 간척 및 매립되기 전의 섬을 일제 조사한 결과 1천4개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군 통계에 잡힌 827개 보다 177개 많은 것으로 지난

2000년 사이에 간척사업이나 매립 등으로 육지로 변했다.

가장 먼저 육지가 된 곳은 1800년 비금면 신원리 꼬치섬이며 안좌면 구대리 덕섬은 1985년 방조제 건설로 육지가 됐다.

신안군은 앞으로 지역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섬 개수를 1천4개로 표기할 방침이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안전 허술 사업장 무더기 행정처분

노동부 목포지청 일제점검

노동부 목포지청(지청장 박덕희)은 안전관리가 허술한 사업장을 무더기로 적발, 행정처분을 내렸다.

목포지청은 최근 광주지청 목포지청과 합동으로 동화, 화재 및 폭발 등의 위험성이 큰 건설현장 12개소와 산업재해 취약 제조업체 14곳에 대해 일제점검을 벌여 A 산업 등 14개 사

업장에 대해 사법처리 및 부분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위험기계, 기구에 대해 방호장치를 하지 않은 B 기업 등 16건에 대해 사용중지, 시정명령 96건, 과태료 768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특히 영암 대불 산단 C 산업의 경우 목재 가공용 동근톱에 방호장치를 하지 않고 추락 예방조치를 소홀히 하는 등 5건이 적발돼 사법처리를 받게 됐다.

박덕희 목포지청장은 “이번 점검 결과 안전난간과 추락 방지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재해 예방조치 미실시가 36건(37.5%)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 재해 예방조치 미실시 15건(15.6%) 등 이었다”면서 “제조업과 건설업 전반에 걸쳐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단속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목포=이상선기자 sslse@

Advertisement for '한우삼형제' (Hanwoo Samhyeongje)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restaurant building and promotional text about beef and food services.

Advertisement for '맨프라이드' (Manpride)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man's torso and promotional text about fitness and health products.